

□ 비평논문

『대동여지도』 연구의 쟁점과 과제

배우성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The Current Issues on *Daedongyeojido* and *Kim Jung-ho*

BAE Woo-sung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rrange how the studies about *Daedongyeojido* have been done in the academic field in terms of checking the history of research and to show what kind of tasks are still remained.

As widely known, *Daedongyeojido* (大東輿地圖, 'The Great Map of Korea') is located at the end of the history of ancient map development. Now the studies about *Daedongyeojido* are going in progress to the three different directions about Kim Jung-ho, map, and geography book. During the 1920s, when Kim Jung-ho was initially studied, some stories were spread. It was about the Kim Jung-ho's almost legendary experiences, such as Kim Jung-ho climbed Baek-du mountain many times or he died in the prison, things like that. Even though the stories are far from the truth, it has been handed down to us. Between

the 1960s and the 1970s, there were many researches that tried to systemize the history of ancient map development. After entering the 1980s, the new data were found and the *Daedongyeojido* was reissued. And then, using the reissued one, detailed researches were conducted. So under this situation, we were facing a new phase to study about *Daedongyeojido*. For that time, not a few point of disputes were floated, such as there are what kind of relations between the map and the geography book which were drawn by Kim Jung-ho and how the genealogy was composed that was passed to *Daedongyeojido* and what kind of mapping style was used for *Daedongyeojido* and how much reduced scale was used for *Daedongyeojido*.

For the researching process, we got some confusion. For a long time the scholars who have been researching mapping style guessed the western science affected to *Daedongyeojido*, but between *Daedongyeojido* and western science, literally there is no relations. Nowadays, geographers are producing meaningful outcomes of study that were related to genealogy of map, but the analysis did not consider the other related variables. Now, the questions about Kim Jung-ho and *Daedongyeojido*, will be solved by understanding him and his map among the period and the context that he lived.

Key Words : *Daedongyeojido*, Kim Jung-ho, *Dongyeodo*, *Cheonggudo*, *Yeodobiji*

1. 들어가는 말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한창이던 1995년도 말, 국립 중앙박물관 지하 수장고에서 『대동여지도』의 목판이 발견되었다.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의 고증 작업 결과 그것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중 일부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동여지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크게 일었다.¹⁾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김정호와 『대동여지도』를 둘러싼 많은 의문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대동여지도』에 대한 우리 학계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연구사 검토 차원에서 정리하고,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를

1) 蘇在龜, “김정호원작 『대동여지도』 목판의 조사”, 『미술자료』 58 (1997).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 한국 고지도 발달사의 종점에는 『대동여지도』가 있다. 이 지도는 분명 조선후기 기호식 지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백두산, 칠보산, 삼각산 등 여러 산줄기에는 기호식 지도라고만 할 수 없는 다양한 표정들이 숨어 있다. 그런 점에서 『대동여지도』는 조선후기 지도 발달의 여러 성과와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계승한 지도라 부를 만하다.

지도의 맨 위쪽 오른쪽 끝 면이 제1책의 첫 면이다. 지도의 표지에 해당하는 이 면에는 제목(대동여지도), 발행연도(1861년), 저자(고산자)가 표시되어 있다. 1책의 나머지 면들에는 서울지도, 축척표(방격표), 지도표 등이 수록되어 있다. 10리 크기의 모눈이 가로로 8개, 세로로 12개가 들어 있는 방격표는 지도 한 면의 크기를 보여준다. 지도표는 『대동여지도』에 사용된 22종의 각종 기호들을 기록해 둔 것이다.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에서 산줄기와 물줄기를 표현한 방식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 고지도 제작자들은 산을 하나의 줄기로 이어서 표현해 왔으며, 또 아무리 낮고 보잘것없는 산줄기라도 큰 물줄기와 관계되었을 때에는 과장해서 묘사하는 전통을 이어 왔다. 백두산에서 시작되는 산줄기를 대간, 정간, 정맥으로 등급화하여 묘사하는 전통도 마찬가지이다.

『대동여지도』의 산줄기들은 백두대간에서 골을 이루는 작은 산들에 이르기까지 굽기를 달리 하고 있다. 군현의 진산(鎭山)이나 종산(宗山)일 경우, 혹은 산성이거나 봉수가 있는 경우는 특별히 강조되었다. 김정호는 전통적인 산줄기 관념을 계승하면서도 독특한 표현법을 구사했다. 그것은 산과 산줄기를 45도 각도로 평면에 투영하여 생기는 그림자모양과 비슷하다. 이찬은 이 묘사법을 산악투영도법(山岳投影圖法)이라고 불렀다. 『대동여지도』에 그려진 물줄기는 하류에서 두 줄기로 이어지다가 상류의 어느 지점부터 한 줄로 묘사된다. 두 줄과 한 줄이 만나는 지점은 뗏목이나 배가 다닐 수 있는 종점에 해당한다.

도로는 실제와는 달리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 위로 10리마다 점이 찍혀 있는데, 그 간격은 일정하지 않다. 두 점 사이의 간격은 평야지대나 하천을 따라가는 곳에서는 지도상의 평균(2.5cm 정도)정도로 유지되는 데 비해, 산간에서는 급격하게 좁아진다. 얼핏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이 간격 차이 안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다. 여행자는 좁은 간격의 10리 표시를 보고 산간에 가파른 도

로나 굽은 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동여지도』는 등고선이 없는 지도이지만, 등고선을 대신할 만한 여러 보완장치들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대동여지도』에는 군현별 경계가 점선으로 그려져 있어서 자료적인 가치를 더한다. 『대동여지도』는 양천처럼 지금은 없어진 군현이나, 양주처럼 변화가 심한 군현들이 조선시대에 그 영역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려 준다. 『대동여지도』의 점선들을 따라가다 보면 수원이나 광주처럼 내륙 군현의 영역이 서해안까지 뻗쳐 들어간 경우들도 볼 수 있다. 『대동여지도』는 바다가 고속도로였던 시대에 내륙 군현들이 해안에 기지를 가져야 했던 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대동여지도』는 오늘날 조선시대의 도로망과 수로교통망을 복원하고, 지형의 변화를 추적해 나가는 데에도 필수적인 자료이다.

2. 『대동여지도』 연구의 역사

1) 일제시기

현재 『대동여지도』에 관한 연구는 김정호 연구, 지도 연구, 지리지 연구 등 세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일제시대에는 김정호의 생애와 『대동여지도』의 위상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처음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김정호의 생애였다. 한국과학사에 기념비적 업적을 남긴 인물이었지만, 생애와 사상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최남선이었다. 그는 1925년 10월 8일과 9일자 『동아일보』에 김정호에 관한 논설을 게재하였고,²⁾ 3년 뒤에는 좀 더 보완된 내용을 『별건곤』에 실었다.³⁾

최남선은 『동아일보』에 발표한 글에서 백두산 등반, 옥사, 판목압수 등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별건곤』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김정호가 백두산을 “일곱 번 올랐다”고 말했던 최남선의 어조는 『별건곤』에서 “세 번인지 네 번인지 올라갔었다고 하더라”로 바뀌었다. 백두산 등반설의 신뢰도는 이

2) 崔南善, “古山子를 懷 歎(下): 드러나가는 大潛龍”, 『동아일보』 (1928년 10월 8일, 9일).

3) 六堂學人, “七十年前에 單身實査, 獨力創製한 古山子の 大東輿地圖”, 『별건곤』 (1928년 5월).

미 1920년대부터 의심받을만한 소지를 안고 있었다.

최남선과 국학 분야에서 쌍벽을 이루던 정인보가 『대동여지도』에 대한 연구 성과를 『동아일보』에 발표한 것은 1931년의 일이었다.⁴⁾ 정인보는 유재건(劉在建)의 『이향견문록』, 『청구도』 등 관련 사료를 인용해 가면서 『대동여지도』를 설명했다. 그는 오늘날 고지도 연구자들이 거론하는 대부분의 사료들을 망라하여 구사했다.

최남선과 정인보의 연구는 『대동여지도』를 조선 지도학 발달의 귀결점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남선은 조선이 “유사 이래 지도학이 특별히 발전해 온 나라”라고 주장했고, 지도제작의 역사뿐만 아니라 천문관측과 측량의 역사를 소개했다. 최남선에 따르면 모든 조선 지도학의 업적들은 결국 『대동여지도』로 집대성되었다 한다. 정인보도 나흥유(羅興儒), 양성지(梁誠之), 윤영(尹鏞), 정상기(鄭尙驥), 홍대용(洪大容), 신경준(申景濬) 등 역대 지도학자들이 이루어낸 성과들을 발굴해 소개했다. 정인보는 김정호가 이들 성과를 참고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훌륭한 초기연구의 흐름은 조선총독부가 1934년에 펴낸 『조선어독본』에 의해 단절되고 말았다. 김정호의 생애는 최남선이 말한 것보다 좀 더 비극적인 것으로 그려졌다. 백두산 등반의 횡수가 8회로 부풀려져 있는 것은 물론, 김정호를 옥사시킨 인물로 대원군이 지목되었다. 『대동여지도』는 앞선 조선지도들과는 무관한, 평지에서 돌출한 지도처럼 묘사되었다.

2) 1960-1970년대

김정호의 삶과 지리지, 지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역사학자 이병도, 과학사학자 전상운, 지리학자 이찬이 이런 연구를 선도하고 있었다. 일찍이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연구한 바 있었던 이병도는 김정호의 지리지와 지도에 대해서도 선구적인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⁵⁾ 이병도는 먼저 김정호의 생애와 업적을 검토했다.⁶⁾ 그는 곧이어 『청구도』와 『대동여지도』, 그리고 『대동지지』 등 김정호의 중요한 지리지와 지도들을 소개했으

4) 정인보, “朝鮮古書解題 大東輿地圖”, 『동아일보』 (1931년 3월 9일, 16일).

5) 李丙燾, “鄭尙驥와 東國地圖”, 『書誌』 1권 1호 (1960).

6) 李丙燾, “地圖 地志의 集大成者로서의 古山子 金正浩”, 『人物韓國史』 4권 (1965).

며,⁷⁾ 특히 『청구도』와 『대동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한 해설을 해 주었다.⁸⁾

전상운은 일찍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의 생애에 대해 질문을 던진 바 있었다.⁹⁾ 그는 이 글에서 김정호의 생애에 대해 『조선어독본』을 넘어설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전상운의 연구는 『대동여지도』에 투영된 과학기술적 성과를 밝히는 쪽으로 진행되었다.¹⁰⁾

한국지리학사를 체계화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지리학자 이찬은 그 일환으로 김정호의 지도와 지리지에 대해 연구했다.¹¹⁾ 그는 김정호의 『청구도』와 『대동여지도』를 이희의 『팔도도』와 『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이어서 서술함으로써 조선전도 발달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고지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1991년에는 한국 고지도를 망라한 기념비적인 저작을 출판했다.¹²⁾

이들의 선구적인 연구에 의해 김정호의 생애와 지도, 지리지에 대한 이해가 한층 풍부해 질 수 있었다. 그러나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동여도』와 『여도비지』 『동여도지』 등 관련 지도와 지리지들이 소개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동여지도』를 좀 더 다른 맥락에서 들여다본 박관섭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¹³⁾ 『대동여지도』의 축척이나 지리적 정확성에 대해서는 이찬 등의 연구가 있었지만, 박관섭은 이밖에도 도법과 서양과학, 실측지도 문제 등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을 던져 주었다.

3) 1980년대 이후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고 『대동여지도』가 복간되었으며,

7) 李丙燾, “靑邱圖, 大東地志, 大東輿地圖”, 『新東亞』 1월호 (1969).

8) 李丙燾, “靑邱圖解題”, 『靑邱圖』 (민족문화추진회, 1971); 李丙燾 “大東地志解題”, 『大東地志』, (아세아문화사, 1976).

9) 전상운, “김정호라는 사람”, 『중앙일보』 (1966년 11월).

10) 전상운, 『韓國科學技術史』 (正音社, 1976); 전상운, 『韓國科學史』 (싸이언스북스, 2000).

11) 李燦, “韓國地理學史”, 『韓國文化史大系』 3 (1968).

12) 李燦, “韓國古地圖”, 『韓國圖書館學研究會』 (1977); 李燦, 『韓國의 古地圖』 (汎友社, 1991).

13) 朴寬燮, “大東輿地圖의 圖法 및 系譜에 關한 歷史地理的 研究 經緯線式 實測地圖 製作史와의 比較 考察”, 『曉天朴寬燮教授頌壽紀念論叢』 (1978).

복간된 자료를 이용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등 김정호와 『대동여지도』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 물꼬를 튼 것은 이찬의 논문이다.¹⁴⁾ 이찬은 이 길지 않은 논문에서 한국 고지도의 좌표 체계를 다루었다. 이 논문의 미덕은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 『조선지도』(朝鮮地圖), 비변사지도 등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다양한 팔도군현지도첩(八道郡縣地圖帖)의 좌표들을 소개한 점에 있다. 이찬이 소개한 지도집들은 군현지도 발달을 『청구도』와 『대동여지도』에 연결해 보려는 90년대 지리학자들에게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다.

이상태는 새로운 자료를 발굴함으로써 『대동여지도』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몇 년간의 추적 끝에 김정호가 편찬한 『여도비지』와 『동여도지』라는 지리지를 찾아내서 학계에 소개했다.¹⁵⁾ 이상태의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 『대동여지도』가 『대동여지도』의 지리지로만 인식되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다른 여러 지리지를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김정호의 지리지와 지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낸 이상태의 공로는 적지 않다. 이상태는 이밖에도 여전히 의문투성이인 김정호의 생애와 신분에 대해서도 연구했다.¹⁶⁾

지도 제작인이자 고지도 연구가인 이우형은 1990년 『대동여지도』 위에 『동여도』의 지명을 함께 넣어 축쇄본을 발행했다. 그는 산경표를 발굴하고, 백두대간의 개념을 비로소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었다. 그는 공인된 과정을 마친 지리학자도 역사학자도 아니었지만, 다른 학자들이 드러내지 못한 『대동여지도』의 의미 체계들을 성공적으로 읽어냈다. 오늘날 널리 인정되고 있는 『대동여지도』의 특징적 면모들은 그의 『대동여지도』 읽기에 힘입은 바 크다.¹⁷⁾

측지학, 계량지리학적 연구들도 있었다. 이들은 역사지리학자와 역사학자들의 분석 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다. 김상수는 『대동여지도』와 현대지도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두 개의 지도를 가급적 동일한 조건으로 보정처리한 후 상호 비교하여, 도법 축척 측량여부 등을 증명해 보이려 했다.¹⁸⁾ 김두일은 고지도나 공간 패턴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기법을 동원하여 『대동여지도』의 도법, 그리고 공간적 정확성에 대해 논했다.¹⁹⁾

14) 李燦, “韓國古地圖에서의 座標體系”, 『한국과학사학회지』 3 권 1 호 (1981).

15) 李相泰, “金正浩의 三大地志 研究”, 『손보기교수정년논총』 (1988); 李相泰 “古山子 金正浩와 東輿圖”, 『<大東輿地圖>의 讀圖』 (1990).

16) 李相泰, “古山子 金正浩의 生涯와 身分 研究”, 『國史館論叢』 8 (1989).

17) 李祐炯, 『大東輿地圖의 讀圖』 (광우당, 1990).

18) 金相洙, “大東輿地圖에 關한 研究”, 『韓國地籍學會報』 8 (1989).

최근에는 『대동여지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거나, 『대동여지도』의 계보를 18세기 기호식 군현지도들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눈에 띈다. 원경렬은 『대동여지도』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수렴하고 역사적, 지리적 자료로서 『대동여지도』를 분석했다.²⁰⁾ 오상학은 『대동여지도』에 실려 있는 지명을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²¹⁾ 외국 학계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개리 레드야드(Gari Ledyard)는 한국 고지도발달사를 정리하고 그 정점에 있는 『대동여지도』를 소개했다.²²⁾

『대동여지도』와 군현지도의 연관성을 검증하려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양보경은 이찬이 제시한 군현지도의 발달성과들을 실증적으로 해명하고, 김정호가 그 지도집의 형식을 발전시켜 『청구도』와 『대동여지도』에서 일정한 면적으로 구획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²³⁾ 이상태²⁴⁾와 이기봉²⁵⁾ 김기혁²⁶⁾ 등은 『청구도』와 18세기 군현지도집들 사이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김정호 지도의 편집 형식 뿐만 아니라 윤곽과 내용이 직접적으로 그 군현지도집들에서 기원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최근의 연구 경향은 지명 분석, 윤곽 비교 등 지도 내용 분석을 통해 계보를 정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대동여지도』연구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에 도달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자료들은 이제 비로소 재조명되거나 심지어 아직도 발굴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더구나 그 자료 분

19) 金斗日, “大東輿地圖의 圖法에 관한 研究”, 『대한지리학회지』 29권 1호 (1994); 金斗日, “大東輿地圖의 空間的 正確性”, 『문화역사지리』 6 (1994).

20) 元慶烈, 『大東輿地圖의 研究』 (성지문화사, 1991); 元慶烈, “大東輿地圖 現代地圖學的 考察”, 『地理學』 26권2호 (1991).

21) 오상학, “김정호의 지도제작과 그 의의”, 『한국지도학회학술대회』 (2004); 오상학, “『대동여지도』의 지명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45 (2005).

22) Gari Ledyard, “Cartography in Korea,” J.B. Harley and David Woodward, eds., *Cartography in Traditional East and Southeast Asian Societies*,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23) 楊普景, “18세기 備邊司地圖의 考察”, 『奎章閣』 15 (1992); 楊普景, “大東輿地圖를 만들기까지”, 『한국사시민강좌』 16 (1995); 楊普景, “『대동여지도』”, 『한국사시민강좌』 23 (1998).

24) 이상태, 『한국고지도발달사』, (혜안, 1999).

25) 이기봉, “동여도해설”, 『동여도』 (서울대 규장각, 2003); 이기봉, “김정호의 <청구도> 제작과정과 지도적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역사지리학회지』 39권 3호 (2004); 이기봉, “<청구도>와 동여도의 지명 위치 비정에 대한 일고찰: 충청도의 해미현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17권 1호 (2005).

26) 김기혁, “<청구도>의 이본 유형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04).

석에 관계된 변수들이 면밀하게 조사되거나 검토되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김정호의 생애 역시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확인 상태로 남아 있다.

3. 『대동여지도』를 둘러싼 쟁점

1) 지리지와 지도의 관계

이병도는 김정호가 만든 지도와 지리지로 『청구도』와 『대동여지도』, 그리고 『대동지지』만을 자세히 소개했다. 물론 당시에 『동여도』를 김정호의 저작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었다. 그러나 『동여도』 제작과 관련된 문헌사료들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김정호와 『동여도』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했었다. 1987년 서지학자 이종학은 신현(申櫟)의 『금당초고』에 실린 글을 발굴해 학계에 알렸다. 신현의 글은 『대동여지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내가 일찍이 우리나라 지도에 뜻을 두어 비변사나 규장각에 소장되었던 것이나 고가에 보관된 벌레 먹은 것 등을 널리 수집하고 證定했는데, 여러 책을 비교하고 참고하여 하나로 편집해 두었다. 마침 金君百源에게 부탁해 그것을 완성해 주도록 하였는데, 가리켜 증명하고 말로 도와주기를 수십 년, 비로소 1부를 완성하니 모두 23권이다.

이상태는 신현의 글과 『동여도』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판각하기 위한 선행지도로 『동여도』를 만들었다고 추정했다.²⁷⁾ 이상태는 여기에 김정호가 만든 지리지로서 『여도비지』와 『동여도지』를 발굴함으로써, 김정호가 3대 지리지와 3대 지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상태에 따르면, 김정호는 1834년경에 『동여도지』를 일차적으로 완성하고, 이를 시방서로 하여 『청구도』를 작성했다. 그 후 20년간 『동여도지』를 보완하여 1851년(철종 2년) 이후에는 최성환과 함께 『여도비지』를 편찬하였는데, 두 사람은 이 『여도비지』를 시방서로 하

27) 李相泰, “金正浩의 三大地志 研究”, 『손보기교수정년논총』(1988); 李相泰 “古山子 金正浩와 東輿圖”, 『<大東輿地圖>의 讀圖』(1990).

여 『동여도』를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신헌의 후원 아래 비변사와 규장각의 관찬지도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 김정호는 이 『동여도』를 저본으로 하여 『대동여지도』 판각 작업을 벌여 1861년(철종 13년)에 간행했다. 그 뒤 김정호는 앞의 두 지리지에 대한 재정리 작업을 벌여 1866년(고종 3년)까지 편찬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양보경은 3대 지리지, 3대 지도론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분석결과를 내놓았다.²⁸⁾ 양보경은 『동여도지』의 편찬 시점을 1834-1844년 사이로 보면서, 김정호가 『청구도』를 완성한 후 『청구도』 제작에 참조했던 기록들을 모아 『동여도지』로 일차 정리하고, 이후 1861년경까지 계속 『동여도지』의 내용을 보완했다고 주장했다. 양보경은 『여도비지』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여도비지』의 편찬 시점은 1853년 - 1856년 사이이며, 김정호가 자료를 제공하고 지도를 그려주었지만, 책자를 편찬한 것은 최성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양보경의 논리는 김정호 자신이 주도적으로 쓰지 않은 지리지를 시방서로 하여 『동여도』를 그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양보경은 『동여도』의 저본을 『여도비지』가 아니라, 1차 편집 후 계속 보완 중이던 『동여도지』로 추정했다. 『동여도』와 『동여도지』는 김정호의 지도와 지리지 중 내용이 가장 자세한 것들이며, 그 이름들 사이에서도 연관성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결국 『대동여지도』는 『동여도지』와 『동여도』를 바탕으로 판각된 것이며, 『대동여지도』 완성 이후 보완해 오던 『동여도지』를 기초로 새로운 지리지편찬을 시도한 것이 『대동지지』라는 것이다.²⁹⁾

김정호가 최성환과 함께 『여도비지』를 편찬했으며, 1861년에 『동여도지』를 완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의 선행지도로 『동여도』를 만들었다는 이상태의 주장은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신헌의 글은 김정호의 지도 작업에서 신헌의 도움이 적지 않았음을 말해준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비변사와 규장각의 자료를 보여주었다는 것, 수십 년 동안 도와준 끝에 지도를 만들 수 있었다는 신헌의 말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오상학은 이 점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오상학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8) 양보경, “古山子 地志의 現代의 評價”, 『대한지리학회 학술회의』 (1991).

29) 양보경, “고산자 김정호의 지리지 편찬과 그 의의”,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보고서』 (대한지리학회, 2001).

“신헌은 아무리 빨라도 1849년이 되어서야 국가의 기밀 지도류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으며, 그나마 그 해부터 1857년까지는 유배당해 있었다. 이상태의 추정에 따르면 『동여도』는 1857년 이후에 만들어졌다 하는데, 126면의 나무판을 혼자 새기려면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1861년에 『대동여지도』가 완성되었다는 사실과는 어딘지 시간적으로 아귀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³⁰⁾ 한편 이기봉은 『동여도』의 내용을 분석한 뒤 이상태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³¹⁾

2) 『대동여지도』의 계보

이상태가 3대 지도, 3대 지리지를 주장하고, 지리지가 지도의 시방서 격으로 제작되었다고 주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리지는 지도제작의 참고용 정도로 여겨졌다. 학자들은 『대동여지도』보다 앞선 지도들이 『대동여지도』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가장 먼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정상기의 『동국지도』였다. 이병도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정상기의 『동국지도』로부터 자극과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했는데 이런 관점은 오랫동안 큰 논란 없이 계승되었다.³²⁾ 또 이상태가 주장한 『청구도』-『동여도』-『대동여지도』의 관계도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³³⁾ 오상학에 따르면, 『청구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수정 보완한 것이며, 『대동여지도』는 『청구도』를 수정 보완한 것이므로 결국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한다.³⁴⁾

『동국지도』-『청구도』-『동여도』-『대동여지도』라는 계보에 대해서는 최근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다. 오상학은 최근 『동여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동여도』가 『대동여지도』의 선행지도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판단하기

30) 오상학, “고산자 김정호의 지도제작과 그 의의”,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보고서』 (국립지리원, 2001).

31) 이기봉, “김정호의 동여도 제작시기에 대한 일고찰”, 『문화역사지리』 17권 3호 (2005).

32) 李丙燾, “靑邱圖, 大東地志, 大東輿地圖”, 『新東亞』 1월호 (1969).

33) 李祐炯, 『大東輿地圖의 讀圖』 (광우당, 1990); 元慶烈, “大東輿地圖-現代地圖學的 考察”, 『地理學』 26권 2호 (1991).

34) 오상학, “농포자 鄭尙驥와 東國地圖”, 『공간이론의 산책』 26 (1999).

어렵다고 주장했다.³⁵⁾ 양보경은 형식과 내용이 『청구도』와 유사한 지도책을 발굴해 소개하고 그것을 『청구도』의 기반이 된 지도로 추정했다.³⁶⁾ 그러나 『청구도』의 기반이 되는 지도가 조선전도 계통일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문제의식이 변한 것은 아니다.

『청구도』의 기반이 된 지도를 조선전도 계통이 아니라 18세기에 발달한 군현지도집에서 찾으려는 경향도 있었다. 이찬은 김정호가 경위선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시의 여러 지도들을 참고로 하여 『청구도』를 완성했다고 주장했다.³⁷⁾ 눈금을 사용한 기호식 군현지도집이 『청구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이우형은 『청구도』가 당시까지 있었던 도별분도 혹은 군현지도집의 한계를 보완하여 더 완전한 지도를 만들려 했던 것이라고 보았다.³⁸⁾

가장 주목받은 지도집으로는 『조선지도』(奎1603)와 『해동여지도』가 있다. 『조선지도』는 20리 간격의 모눈이 도면의 바깥쪽에 그려져 있는 점, 인접 군현과의 연결 관계가 고려되어 있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해동여지도』는 위 『조선지도』와 같은 윤곽이면서도 몇 개의 군현들을 한 도면에 그린 점, 도별 경위전도와 군현지도의 경위선을 갖춘 점 등이 다르다. 자연히 20리 모눈의 간격도 도면들 사이에서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상태는 기호식 군현지도집인 『해동여지도』와 『청구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확인된다고 주장했다.³⁹⁾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진 연구들은 2000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기봉도 기호식 군현지도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해동여지도』와 『청구도』 사이의 연관관계를 확인했다.⁴⁰⁾ 김기혁은 『청구도』의 이본을 조사, 분석한 뒤, 『조선지도』 계열이 이후의 대축척 조선전도로 계승되었다고 주장했다.⁴¹⁾

35) 오상학, “고산자 김정호의 지도제작과 그 의의”,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보고서』 (국립지리원, 2001).

36) 양보경, “日本大坂府立圖書館 소장 朝鮮圖의 고찰”, 『書誌學研究』 17 (1999).

37) 李燦, “韓國地理學史”, 『韓國文化史大系』 3 (1968).

38) 李祐炯, 『大東輿地圖의 讀圖』.

39) 이상태, 『한국고지도발달사』, (해안, 1999).

40) 이기봉, “동여도해설”, 『동여도』 (서울대 규장각, 2003); 이기봉, “김정호의 <청구도> 제작과정과 지도적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역사지리학회지』 39권 3호 (2004).

41) 김기혁, “<청구도>의 이본 유형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04).

3) 실측여부를 둘러싼 논란

이찬은 『대동여지도』가 위도상의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실측지도라고 주장했다.⁴²⁾ 그런 입장은 박관섭 역시 다르지 않다. 박관섭은 김정호가 이미 이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된 위도 수치를 활용했으며, 직접 평판측량기를 들고 필요한 경우 측량을 했었다고 주장했다.⁴³⁾

실측지도에 관한 논란은 『여도비지』가 발견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여도비지』에 강역표, 극고표, 방위표, 도리표 등이 도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역표는 각 군현의 중심에서 8방위 경계지점까지의 거리를 적은 것이며, 극고표는 각 군현의 위도와 편동도를 정리한 것이다. 또 도리표는 도내 각 군현들 간의 거리를 정리한 표이며, 방위표는 서울을 기준으로 각 군현의 방향(24방위)과 거리를 표시한 것이다. 모두가 지도상에서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들이다.

원경렬은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제작하면서 『여도비지』의 자료를 충실하게 반영했지만, 삼각측량과 같은 지도측량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실측지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⁴⁴⁾ 『대동여지도』가 실측지도가 아니라 당시 발간된 지도나 읍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한 산악지대나 인구희소지역의 윤곽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상태와 한영우는 김정호의 백두산 답사설 등이 사실과 관련이 없고, 사실상 지도 자료들을 열람했던 것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실측지도가 아니라 편집지도라고 주장했다.⁴⁵⁾

실측지도 여부에 관한 김상수와 이찬의 논의는 좀 더 구체적이다. 김상수는 김정호가 『청구도』를 만들면서 정조 때의 경위도 측정치를 사용한 뒤, 『여도비지』 등의 자료를 보강하여 『대동여지도』를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정호가 평판측량기를 들고 측량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동여지도』 안에 조선시대 천문관측과 측량의 성과가 반영되어 있다면 실측지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42) 李燦, “韓國地理學史”, 『韓國文化史大系』 3 (1968).

43) 朴寬燮, “大東輿地圖의 圖法 및 系譜에 關한 歷史地理的 研究 經緯線式 實測地圖 製作史와의 比較 考察”, 『曉天朴寬燮教授頌壽紀念論叢』 (1978).

44) 元慶烈, “大東輿地圖—現代地圖學的 考察”, 『地理學』 26권 2호 (1991).

45) 李相泰, “古山子 金正浩의 生涯와 身分 연구”, 『國史館論叢』 8 (1989);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 『우리 옛 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1999).

것이다. 『여도비지』의 수치들은 측량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⁴⁶⁾ 이찬은 이 『여도비지』의 수치들이 『동국지도』 유형의 전도, 혹은 『대동여지도』의 원도를 놓고 자료 전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그런 방식이라면 현지에서의 측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대동여지도』의 제작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⁴⁷⁾

실측지도에 관한 논란은 『대동여지도』가 공간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지도인가에 대한 논란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찬은 『청구도』와 『대동여지도』 현대지도를 중첩시키는 방법으로 정확성을 비교했다. 박관섭, 원경렬도 비슷한 방법들을 구사했다. 이찬과 원경렬은 윤곽을 비교했던 반면, 박관섭은 도시간 방위와 거리의 정확도를 비교했다. 그들은 『대동여지도』가 중강진과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위도상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산악지대 혹은 인구 희소지대를 제외하고는 높은 정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⁴⁸⁾

김상수와 김두일은 단순히 지도를 중첩시키는 방법으로 그 정확도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김상수는 지도의 도법을 보정하여 비교한 결과 관측이 용이한 지역의 정확도가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김두일은 전국 차원의 정확성과 지역 차원의 정확성이 다르며, 지역 차원에서의 정확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밝혔다.⁴⁹⁾

4) 도법과 작도과정

『대동여지도』가 어떤 도법에 따라 그려졌는가는 학자들의 오랜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이찬은 『대동여지도』는 북쪽으로 갈수록 지도의 동서거리가 실제보다 넓어지는 일종의 장방형도법(Rectangular projection)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동여지도』가 실제적으로는 네모 모양의 모눈에 의해 그려졌기 때문이다.⁵⁰⁾

46) 金相洙, “大東輿地圖에 관한 研究”, 『韓國地籍學會報』 8 (1989).

47) 李燦, 『韓國의 古地圖』 (汎友社, 1991).

48) 李燦, “韓國地理學史”, 『韓國文化史大系』 3 (1968); 朴寬燮 “大東輿地圖의 圖法 및 系譜에 관한 歷史地理的 研究: 經緯線式 實測地圖 製作史와의 比較 考察”, 『曉天朴寬燮教授頌壽紀念論叢』 (1978); 元慶烈, “大東輿地圖—現代地圖學的 考察”, 『地理學』 26 권 2호 (1991).

49) 金相洙, “大東輿地圖에 관한 研究”, 『韓國地籍學會報』 8 (1989); 金斗日, “大東輿地圖의 空間的 正確性”, 『문화역사지리』 6 (1994).

박관섭은 『청구도』 범례에 보이는 지도식을 근거로 김정호가 심사도법의 원리를 『대동여지도』에 적용했다고 주장했다.⁵¹⁾ 심사도법(gnomonic projection)은 지구에 접하는 투영면 위에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경위선을 투사한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김상수는 『대동여지도』의 도법이 현대의 해도와 동일한 머케이트도법이라고 주장했다.⁵²⁾ 머케이트도법은 경선과 위선이 직선으로 된 정각도법으로 어떤 지점에서든지 경위도의 정확한 비율을 알 수 있는 지도 투영법이다. 김두일은 『대동여지도』의 도법을 현재 지형도와 같은 대축척지도에 이용되는 TM도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⁵³⁾ 이 도법은 남북 방향의 위도의 왜곡이 없으며, 지도상의 방위각도 실제의 방위각처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동여지도』의 도법에 가장 가깝다 한다.

『대동여지도』를 투영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려는 입장들도 있었다. 『청구도』의 도법이 곧 『대동여지도』의 도법이라고 보는 이우형은 『청구도』 범례에 보이는 지도식(地圖式)과 축소확대법을 『대동여지도』의 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관섭은 지도식을 심사도법의 근거로 사용했지만, 이우형은 지도식을 투영법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박관섭과는 달랐다. 이우형에 따르면, 김정호는 방패법을 기본도법으로 하고, 『여도비지』 강역표에 있는 방위와 도시간 거리를 적용했으며, 기타 거리와 방위가 부정확한 지명들은 지도식을 적용하여 편집하였다고 한다.⁵⁴⁾

원경렬과 이기봉은 『청구도』의 지도식이 단지 거리와 방위에 대한 설명일 뿐 도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경렬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김정호가 도법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방격표 상에서도 아무런 왜곡(확대나 축소)이 없기 때문에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에서 투영법을 구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⁵⁵⁾

50) 李燦, “韓國地理學史”, 『韓國文化史大系』 3 (1968).

51) 朴寬燮, “大東輿地圖의 圖法 및 系譜에 關한 歷史地理的 研究 經緯線式 實測地圖 製作史와의 比較 考察”, 『曉天朴寬燮教授頌壽紀念論叢』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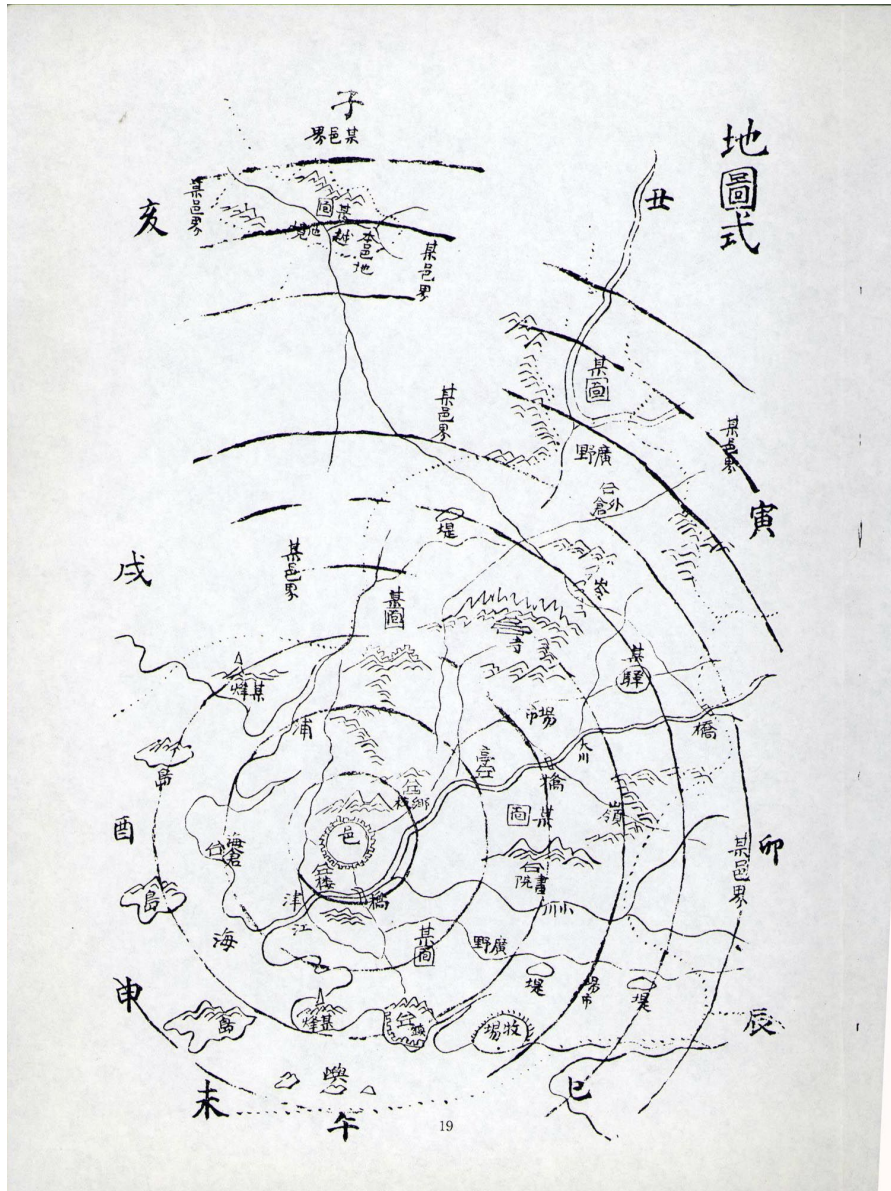
52) 金相洙, “大東輿地圖에 關한 研究”, 『韓國地籍學會報』 8 (1989).

53) 金斗日, “大東輿地圖의 圖法에 關한 研究”, 『대한지리학회지』 29권 1호 (1994).

54) 李祐炯, 『大東輿地圖의 讀圖』, (광우당, 1990); 朴寬燮 “大東輿地圖의 圖法 및 系譜에 關한 歷史地理的 研究: 經緯線式 實測地圖 製作史와의 比較 考察”, 『曉天朴寬燮教授頌壽紀念論叢』 (1978).

55) 元慶烈, “大東輿地圖—現代地圖學的 考察”, 『地理學』 26권 2호 (1991); 이기봉, “동여도 해설”, 『동여도』 (서울대 규장각, 2003).

원경렬은 이우형처럼 『여도비지』의 자료에 주목했다. 원경렬에 따르면 김정호는 모눈을 그어 지도를 그렸을 중국적인 지도제작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그 위에 서울을 기점으로 한 전국 각 군현의 위치, 방위, 서울까지의 직선거리 등 『여도비지』의 수치를 적용하여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그림〉『청구도』의 지도식

『여도비지』의 각종 정보 가운데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었는지도 논란거리의 하나이다. 이우형은 김정호가 거리를 가장 중시했다고 본 반면, 원경렬은 방위를 들었다. 원경렬은 특히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자를 때 도시가 절단되지 않도록 절단면에 있는 도시들의 위치를 약간 옮겼다고 주장했다. 도읍간의 거리는 조금 틀리더라도 방위를 정확하게 표시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⁵⁶⁾

5) 축 척

『대동여지도』의 축척 문제는 도법과 함께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들만 보기로 한다. 이찬은 10리=4km설을 채택하여 『대동여지도』의 축척을 1:160,000으로 보았다. 가로 20cm, 세로 30cm가 각각 80리, 120리를 나타내는데, 10리=4km라면 48km가 30cm, 32km가 20cm로 축소된 셈이니, 축척은 1:160,000이 되는 것이다.⁵⁷⁾ 이 설은 방동인 등 지리학자들의 저서에 소개되면서 『대동여지도』의 축척으로 널리 통용되어 왔다.⁵⁸⁾ 그러나 10리=4km설이 일제 시기에 도입된 것이라는 점이 인식되면서 이 설은 설득력을 잃었다.

김상수는 『대동여지도』의 전체 형태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한반도 전체의 면적을 구한 다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1:165,000-168,000의 축척을 주장했다.⁵⁹⁾ 원경렬은 다른 방식으로 거의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대동여지도』의 정확한 축척을 알아보기 위해 『대동여지도』와 현대지도를 같은 크기로 중첩시키는 방법을 구사했다. 그는 두 지도가 정확하게 만나는 두 지점(동해안의 고성군 현내면 장평리와 서해안의 인천부 신현 남쪽의 해안선)을 확인하고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의 길이를 측정하여 1:165,589.1이라는 계산 결과를 내놓았다.⁶⁰⁾ 전상운은 자의 길이를 가지고 축척을 계산했다.⁶¹⁾ 『속대전』과 『대동지지』에는 “周尺으로 6척이 1보, 360

56) 李祐炯, 『大東輿地圖의 讀圖』, (량우당, 1990); 元慶烈, “大東輿地圖—現代地圖學的 考察”, 『地理學』 26권 2호 (1991).

57) 李燦, “韓國地理學史”, 『韓國文化史大系』 3 (1968); 李燦, 『韓國의 古地圖』 (汎友社, 1991).

58) 방동인, 『韓國의 地圖』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59) 金相洙, “大東輿地圖에 關한 研究”, 『韓國地籍學會報』 8 (1989).

60) 元慶烈, 『大東輿地圖의 研究』 (성지문화사, 1991); 元慶烈, “大東輿地圖—現代地圖學的 考察”, 『地理學』 26권 2호 (1991).

61) 전상운, “고지도와 과학기술”, 『해동지도』 (서울대 규장각, 1995).

보가 1리, 3600보가 10리”라는 규정이 나온다. 전상운은 주척 1척의 길이를 20.7-21.2cm라고 보아 10리는 약 4.47-4.58km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로 『대동여지도』의 축척을 계산해보면 약 1:166,000-1:168,000이 된다.

성남해, 이우형 등은 1:216,000의 축척을 주장하고 있다. 성남해에 따르면, 『대동지지』에 나오는 1도=200리설과 ‘1보=6척’규정을 활용하여 1:216,00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다.⁶²⁾ 이우형에 따르면, 미터법이 지구의 둘레를 40,000km로 여긴 것에서 출발한 단위라는 전제 위에서 360도의 1도당 값 111.11km을 1도=200리에 적용하면 10리는 약 5.5km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다. 이우형은 또 조선시대의 1보는 사람의 두 발이 모두 진행되었을 때를 말한다는 전제 아래 『대동지지』에 수록된 한양 내의 보수를 추산한 뒤 10리가 약 5.4km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성남해는 최근 ‘10리=3600보’라는 사실과 『대동여지도』의 방안표를 근거로 하여 1:216,000설을 다시 주장했다.⁶³⁾ 성남해는 이우형이 제시한 논거들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4. 남은 과제

연구사적으로 볼 때 『대동여지도』에 대한 최초의 논쟁점은 서양과학과 도법에 관한 문제였다. 이 문제를 가장 앞서 제기했던 것은 박관섭이었다. 박관섭은 『대동여지도』가 경위도를 실측한 자료와 거리 실측자료, 그리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창안한 과학적 실측지도라고 말했다.⁶⁴⁾ 그런데 박관섭이 직접적인 서양 지도의 영향이라고 말했던 지도표는 지금 어떻게 설명되고 있을까?

박관섭과는 반대로 이우형은 김정호가 지도표를 창안한 것이라고 보았다. 원경렬은 조선시대 지도의 기호표에 대해 언급했으며, 양보경은 조선시대 기호표의

62) 成南海, “靑邱圖와 大東輿地圖의 縮尺과 丈尺의 考察”, 『測量』 (1985).

63) 성남해, “『대동여지도』 연구의 제문제: 제1편 『대동여지도』의 축척과 조선전통 10리”, 『測量』 53 (2000); 성남해, “『대동여지도』 연구의 제문제: 『대동여지도』의 축척과 조선전통 10리(2)”, 『測量』 54 (2001). 성남해의 주장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상학, “고산자 김정호의 지도제작과 그 의의”,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보고서』 (국립지리원, 2001) 참조.

64) 朴寬燮, “大東輿地圖의 圖法 및 系譜에 關한 歷史地理的 研究 經緯線式 實測地圖 製作史와의 比較 考察”, 『曉天朴寬燮教授頌壽紀念論叢』 (1978).

발달에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비변사지도의 기호에 대해서 밝혀 주었다.⁶⁵⁾ 『대동여지도』의 기호표는 조선지도학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은 서양과학이 『대동여지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다. 도법에 관한 연구들은 그런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박관섭이 심사도법을, 김상수가 머케이트도법을, 김두일이 TM도법을 주장했던 데에는 공통되는 전제가 있다. 김정호가 투영법을 포함한 서양과학에 폭넓게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그것이다. 맥락은 다르지만, 윤홍기도 대동여지도에 영향을 준 여러 지도들 가운데 서양의 세계지도를 거론했다. 양보경도 『대동여지도』가 가능할 수 있었던 지도학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로 서구식 세계지도의 수용을 강조했다.⁶⁶⁾

도법이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구체적인 지구를 평면인 지도에 표현하는 지도투영법을 의미한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에서 투영법의 개념을 적용하려 했었는가? 물론 김정호는 1834년 최한기의 부탁을 받고 『지구전후도』라는 이름의 서구식 세계지도를 나무판에 새긴 일이 있었다. 『청구도』 범례를 보면 김정호가 『기하원본』을 거론한 대목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밖에 다른 어떤 기록에서도 김정호가 투영법을 이해하고 있었거나 그것을 자신의 지도에 적용하려 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김정호가 서양과학의 일부 성과를 이해했으며 서구식 세계지도를 보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과 『대동여지도』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인 연관이 없다.

축척에 관한 논쟁 가운데에도 그런 측면이 있다. 측지학적인 방법이나, 『대동여지도』를 중첩시켜서 얻은 결론은 거리개념으로서의 축척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우형이 1도=200리설에 따라 10리의 거리를 계산한 것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⁶⁷⁾ “하늘의 1도가 땅의 200리”라는 것은 서구식 세계지도를 받아들이

65) 李祐炯, 『大東輿地圖의 讀圖』, (광우당, 1990); 元慶烈, 『大東輿地圖의 研究』 (성지문화사, 1991); 楊普景, “18세기 備邊司地圖의 考察”, 『奎章閣』 15 (1992).

66) 朴寬燮, “大東輿地圖의 圖法 및 系譜에 關한 歷史地理的 研究 經緯線式 實測地圖 製作史와의 比較 考察”, 『曉天朴寬燮教授頌壽紀念論叢』 (1978); 金相洙, “大東輿地圖에 關한 研究”, 『韓國地籍學會報』 8 (1989); 金斗日, “大東輿地圖의 圖法에 關한 研究”, 『대한지리학회지』 29권 1호 (1994); 윤홍기, “대동여지도의 지도축보론적 연구”, 『문화역사지리』 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991); 楊普景, “大東輿地圖를 만들기까지”, 『한국사시민강좌』 16 (1995).

67) 李祐炯, 『大東輿地圖의 讀圖』, (광우당, 1990).

면서 알게 된 것인데, 김정호는 이 내용을 『대동지지』에 기록해 두었다. 김상수의 계산에 따르면 위도별 1도에 대한 평균 지상거리는 201리가 되지만, 각 위도별 지상거리들은 서로 차이가 있다.⁶⁸⁾ 또 김정호가 『대동여지도』 제작 과정에서 그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1도=200리설을 근거로 10리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식은 『대동여지도』의 축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김정호가 10리를 얼마로 보고 작도하려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축척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계보를 밝히려는 연구들은 어떠한가? 이미 최남선과 정인보 단계에서부터 『대동여지도』를 한국 지도학 발달사의 귀결점으로 간주해 왔지만, 실제 세부적으로 그 계보가 연구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동국지도』-『청구도』-『동여도』-『대동여지도』로 이어지는 전도 중심의 계보 인식은 이제 군현지도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호식 군현지도집과 『대동여지도』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 지도로 『청구도』가 새삼스럽게 주목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군현지도집들과 『청구도』의 내용을 직접 검토함으로써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합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청구도』의 내용이 현재 남아 있는 군현지도집 중 어떤 사본과 가장 유사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들이 김정호가 비판한 선행지도의 특징들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파악해 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김정호가 본 선행지도가 표(表)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청구도』 제와 범례에 따르면, 김정호는 책판의 크기에 제한되어 경위선 간격이 도엽마다 다른 도별 군현지도집을 보았다. 그 도별 군현지도집은 1군현마다 1도엽으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지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관계도 배려되지 않은 것이었다.

계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들이 간과된 측면도 있다. 『조선지도』를 신경준의 지도로 확정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도』 제와 범례에서 비판된 선행지도의 내용이 왜 신경준 지도의 특징들과 일치하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청구도』 범례에 보이는 지도의 축소확대술은 물론 기술적으로는 김정호가 저본으로 삼은 선행지도들과 연관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김정호가 누구를 독자(讀者)로 하여, 무엇을 위해 그런 내용을 범례에 넣으려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68) 金相洙, “大東輿地圖에 關한 研究”, 『韓國地籍學會報』 8 (1989).

지도와 연관된 지리지들 중에는 『여도비지』처럼 논쟁의 핵심에 있는 사료들도 있다. 『여도비지』는 지리지와 지도의 관계, 계보, 실측지도 논란, 도법과 작도과정 등에 모두 걸려 있는 사료이다. 김정호는 지리지의 공저자인가, 제한적으로 참여한 협력자인가? 『여도비지』는 『동여도지』의 지방서인가 아닌가? 『여도비지』에 수록된 극고표를 비롯한 각종 수치들은 실측한 자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 수치들은 『대동여지도』의 제작에 얼마나 어떻게 활용된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도비지』와 나머지 지리지들 간의 관계에도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 『대동지지』의 위도 수치가 왜 평안북도 군현 이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이다. 혹시 이곳 지리지의 형식들이 다른 도나 군현 지리지의 형식과 다른 것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아직도 『대동지지』에 실린 평안북도, 그리고 온성부와 해남현의 위도 및 편동도에 관한 수치가 『여도비지』에 기록된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원경렬은 『여도비지』에 실린 전국 군현의 위도와 편동도 수치가 『대동여지도』에 거의 대부분 구현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⁶⁹⁾ 그렇다면 『대동지지』에 실린 평안북도 각 군현, 온성, 해남의 위도와 편동도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역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80년대 이후 『대동여지도』 연구는 많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다. 그러나 『대동여지도』는 아직도 관련 실물이 하나 보고 되면 계보가 수정 되고, 관련 논의의 물줄기가 크게 달라지는 형편이다. 원본과 사본의 관계 설정, 지도 자료가 가진 사료로서의 특성에 대해서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명(地名)에 의존해 지도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고지도 연구에 일반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다른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초기적인 지형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동여지도』와 관련된 논쟁점들을 검토하다보면 논의가 입체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사람이 없고 지도만 있는 이 느낌은 역사적 맥락의 부재 때문이다. 어떤 연구도 축척과 도법을 논하고 그 계보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발화자(發話者)의 의도와 독자의 위상, 김정호가 지도 작업을 수행했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먼저 파헤쳐보려 하지 않았다. 남아있는 지도를 분석함으로써 축척과 도

69) 元慶烈, 『大東輿地圖의 研究』 (성지문화사, 1991).

법을 말하고 계보를 밝혀내려 했을 뿐이다.

『청구도』의 지도식을 투영법, 혹은 『대동여지도』의 도법으로 생각했던 연구들은 김정호의 의도와 자료의 흐름을 읽는 데 실패했을 경우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지도를 계보화하는 일은 윤곽과 내용을 기준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계보화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어떤 시대적, 사회적 요구 위에 있었는가를 반드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동여지도』와 그 선행지도들은 이밖에도 관찬 여부, 원본 여부, 관련 전거들의 유통 경로 등 너무나 광범위한 다른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물론 자료 부족이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도를 컨텍스트 속에서 설명해 내지 못하는 한, 대상에 대한 일면적 이해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청구도』 제나 범례 등 많지 않은 문헌자료들이나마 좀 더 원문의 의미에 충실하게 독해할 수 있다면, 그 기록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다. 김정호의 생애 역시 지리지, 지도와 관련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한다.⁷⁰⁾ 문제의 식만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질문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더구나 분과학문 간의 경계와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다양한 변수들에 관한 상관적(相關的) 인식의 기초 위에서 간학문적인 해법을 찾아간다면, 남아 있는 과제들을 풀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70) 배우성, “조선 지리학을 완성한 위항인, 김정호”, 『한국의 과학기술인물 12인』 (해나무, 2005).